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원적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in Plural Analysis

저자 (Authors)	표정희, 이태구 Pyo, Jeong-Hee, Lee, Tae-Gu
출처 (Source)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2016.03, 81-104(24 pages)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 2016.03, 81-104(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Korean Society of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7403
APA Style	표정희, 이태구 (2016).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원적 해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81-104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원적 해석

I. 서론
II. 작품소개
III. 작품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표정희*, 이태구

초 록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2년 한국에서 개봉되어 200만 관객이상을 동원하며 흥행돌풍을 일으킨 작품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장의 작품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이전에 작품자체의 아름다운 경관묘사와 괴상하고 코믹하게 생긴 생물체들의 등장,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작품 내의 장치들은 관객들에게 심심한 재미와 궁금증을 유발한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은 흡입력이 좋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품을 분석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은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작품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서부터 작품에 내재된 문화적, 철학적 요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면, 한 작품으로 논할 수 있는 주제는 프리즘에 투영된 빛의 모습처럼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논문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본 연구는 기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위하여 동양사상뿐만 아니라 서양사상을 그 분석틀로 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는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은 양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본질은 동일함을 시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원적 해석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과 지향점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다원적 해석, 동양사상, 서양사상

I. 서론

1. 애니메이션을 통한 인문학적 고찰의 중요성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인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살게 되지만, 인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¹⁾이라는 사전적 정의조차 방대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으로 느끼기에 인문학은 마치 안개와 같다.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흩어져서 그 실체가 관찰되지 않는 학문처럼 여겨진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전 읽기 열풍, 인문학 열풍이 꾸준히 불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8년에 발발한 IMF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국가적으로 힘든 해였던 1999년과 2000년에 진행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노자와 논어강의는 신드롬을 형성할 정도로 동양고전읽기 열풍과 인문학의 봄을 일으켰다. 헤민스님의 마음치유콘서트와 김제동의 청춘콘서트 등은 20, 30대의 청년층에게 꾸준한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뜻한 말과 즐거운 음악,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방청객에게 가서 포옹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을까?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해 주며, 그 과정을 통해 치유가 되기 때문이다. 3포, 5포 등의 부정적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세대에게 가혹한 현실에서 인문학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유연하며 대양과도 같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명의 혁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이란 아날로그적이고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첨단 문명의 콘텐츠에도 인간의 사유와 철학, 삶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즉 디지털이란 첨단 매체조차 인간을 보여주는 하나의 양식에 불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요소는 항상 존재한다. 애니메이션은 각양각색의 주제를 무한한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5R1A5A7036513).

1) 네이버 교육학용어사전, www.naver.com, 검색어: 인문학, 2015.11.10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이다. 더욱이 디지털미디어의 등장 이후 문화소비자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독특한 문화소비재를 요구하고 있다.²⁾ 광범위한 상상의 영역을 다루는 문화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걸 맞는 풍부한 소재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연출력 또한 디지털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애니메이션은 적격이다.

문화는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경작의 산물이다.³⁾ 다양한 문화의 존재는 물질적·정신적 가치가 다름을 의미하고 삶의 형태가 다름을 의미한다. 새뮤얼 헌팅턴⁴⁾은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의 문화권을 서구, 중국, 아프리카권, 아랍, 동방정교회, 라틴 아메리카, 일본, 불교 및 힌두 등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문화권마다 고유의 삶의 방식과 형태가 있으며 그에 따른 학문의 정립 방식도 다르다. 인문학은 문화적 속성에 덧칠 되어져 문화권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고 본질을 바라본다면 인류가 지닌 본질적 물음과 고민은 같을 수밖에 없다.

애니메이션은 관객과 쉽게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서, 문화권마다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인문학을 좀 더 편안하고 격의 없이 보여줄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본질적 물음과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는 작업은 인류의 발전과 화합에 한 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분석가치

2) 김은미, 권경은, 「문화자본과 확장된 '문화소비' - 무엇을 소비하는가에서 어떻게 소비하는가로」,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69호(2015.2), p.111

3)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문화, 2015.11.05

4) Samuel Huntington(1927.4.18~2008.12.24): '문명충돌론'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이다. 군사정치학과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이론정치와 현실정치를 두루 체험한 정치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저서로 『제3의 물결-20세기 후반의 민주화』, 『미국정치론』, 『문명의 충돌』 등이 있다. (네이버 두산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2년, 제25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을 시작으로 제28회 LA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상, 제5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금곰상을, 2003년에 제 7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애니메이션작품상 등을 수상하였고 미국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흥행을 통하여 304억 엔(약 304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⁵⁾ 한국에서는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가 묻어나는 애니메이션은 비단 아시아적 감성코드에만 머물지 않고, 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

한국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처음 개봉 된지 13년의 시간이 흐른 2015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디지털 리마스터링(Digital Remastering)으로 화질만 개선한 채 동일한 내용으로 재개봉 하였다. 10여년의 세월동안 우리 삶의 모습과 가치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트렌드 등 또한 조금씩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공감하고 추억하고 있다. 이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분석방법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고 흥행한 작품이다. 이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여 인간이 지닌 본질적 가치에 대한 내용과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자의 『도덕경』, 공자의 『논어』, 불교 철학과 같은 동양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고전과 서양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크리스티교⁶⁾의 『성서』 및 동양과 서양사상의 융합적 사고를 변증하는 『노장철학과 니체의 니힐리즘』, 『노자와 음』

5)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검색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15.11.07

6)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서구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리스티교의 전파와 정착이다.

과 같은 도서를 바탕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다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유의 본질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II. 작품소개

시골로 이사 온 '치히로'의 가족은 길을 잘못 들어서 산길을 달린다. '치히로' 가족이 탄 승용차는 낡아 보이지만 시멘트로 만들어진 터널 입구의 석상 앞에 선다. '치히로'의 아버지는 호기롭게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지만 곧 따라 들어간다. '치히로'는 마지못해 부모님을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터널 밖으로 나온 '치히로'의 부모님은 넓고 푸른 언덕과 마주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한다. 오래전 버려진 테마파크처럼 보이지만 '치히로'는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 '치히로'는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하쿠'를 만난다. '하쿠'가 '치히로'에게 “여기 오면 안돼”라고 경고를 하자마자 날이 저물고 신들(요괴, 귀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편 주인 없는 노점에 앉아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던 '치히로'의 부모님은 돼지가 된다. 온천장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주인, '유바바'에게 마법을 배우려고 왔다가 진짜 이름을 뺏긴 '하쿠'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강의 신이자 용이다. '하쿠'는 '유바바'의 부하로 일하고 있지만 '치히로'가 인간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조언을 해준다. '치히로'에게 “절대 이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 세계에서는 일을 안 하면 '유바바'가 동물로 만들어 버리니 '가마할아범'을 찾아가라고 한다. '가마할아범'은 온천장 종업원 '린'에게 치히로를 '유바바'에게 데리고 가라고 한다. '치히로'는 일을 하기 위해 '유바바'와 계약을 하면서 '치히로'란 이름을 빼앗기고 '센'이란 이름을 얻는다. 온천장에서 일을 하게 된 '치히로'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모두가 싫어하는 부패의 신을 정성껏 목욕시킨다. 부패의 신은 사실 강의 신으로 인간이 강에 버린 쓰레기 때문에 행색이

더러워져 있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강의 신은 '치히로'에게 감사의 인사로 환약을 준다. 반면 '가오나시'는 원래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대상이지만 '치히로'는 비를 맞고 있는 '가오나시'에게 들어오라고 한다. '가오나시'는 '치히로'가 자신이 준 금을 받아주지 않자 다른 신을 잡아먹고 행패를 부린다. 한편, '하쿠'는 '유바바'의 명령으로 '유바바'의 언니 '제니바'의 도장을 훔친다. 도장에 걸린 마법 때문에 괴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하쿠'에게 '치히로'는 강의 신에게 받은 환약을 먹이고, '가마할아뎀'이 달인 찻물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유바바'가 '하쿠'의 몸안에 심어놓았던 벌레를 밟아 없애버린다. '하쿠'가 훔친 도장을 돌려주기 위해 '치히로'는 '가오나시'와 함께 '제니바'의 집으로 간다. '유바바'와 달리 순박하고 너그러운 '제니바'는 '하쿠'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오나시'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반면 '하쿠'는 유바바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한다. '유바바'는 '가오나시'가 준 금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아들 '보'가 가짜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가짜인 것을 알고 허겁지겁 당황하는 '유바바'에게 '하쿠'는 '보'를 데리고 올테니 '치히로'와 '치히로'의 부모를 인간세계로 돌려 보내달라고 한다. '하쿠'는 '보'와 '치히로' 일행을 데리러 오고, '치히로'는 어릴 때 빠졌던 강물 이름이 고타쿠임을 생각해 낸다. '하쿠'는 '치히로' 덕분에 자신의 진짜이름인 '니기하야미 코하쿠누시'를 떠올린다. '치히로' 또한 '하쿠' 덕분에 '유바바'의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하고 부모님과 함께 인간세계로 돌아간다.

Ⅲ. 작품분석

1. 이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는 인간 세계에서의 이름이고 '센'은 신의 세계에서 이름이다. 원래 있었던 곳에서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 세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설정을 통해 이름이 캐릭터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자의 논어 제13편 자로(子路) 3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온다.

자로가 말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께 정사를 맡기려는데, 선생님께서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시행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 잡겠다 必也正名乎.” 7)

필야정명호(必也正名乎) 즉 명분은 이름을 일컫는다.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르지 않고,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게 적절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분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반드시 행함이 가능하니, 군자는 말에 있어 구차한 것이 없을 뿐이다.” 8)

즉, 이름을 바로 세움으로써 바른 행실이 가능하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공자는 정명(正名)을 들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 제1장에 의하면 이름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도’ 라고 할 수 있는 ‘도’ 는 영원한 ‘도’ 가 아닙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함을 볼 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원은 같은 것. 이름이 다를 뿐 둘 다 신비스러운 것. 신비 중의 신비요, 모든

7) 공자지음, 고전연구회 옮김, 『논어』, 더클래식, 2014, p.122

8) 공자, 앞의 책, p.122

신비의 문입니다.⁹⁾

유가와 도가의 의미가 대립되어 보이지만 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존재이든 이름을 붙이면 성질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절대적 존재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성질을 지니는 상대적 존재가 되어버리므로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더 이상 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자와 노자는 이름의 속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름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자는 이름 이전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치히로'는 신의 세계에서 '센'이란 이름을 부여받는다. '치히로'란 이름은 인간세계의 정체성과 독립성¹⁰⁾을 지닌 성질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신의 세계에서 '치히로'는 '센'이 되었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존재는 고유하다. 그러므로 '치히로'의 이름을 잃더라도 '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존재 근원이 있기 때문에 '치히로'란 이름을 찾게 되면 인간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2. 행방불명(가미가쿠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원제는 <千と千尋の神隠し>이고, 영어 제목은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이다. '행방불명'으로 해석된 가미가쿠시(神隠し)는 Spiriting Away, 즉 물질세계에서의 단순한 물리적 사라짐이 아니라 이세계(異世界)로의 영혼의 사라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미가쿠시는 예로부터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전승 중 하나로, 현실과 다른 이계(異界)가 공존한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은 주위사람 특히 어린아이가 사라지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신이 딴 세계로 데려갔다고 믿었다. 가미가쿠시에는 미아, 유괴, 가출 등의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힘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 즉 유토피아

9) 노자원전, 오감남 풀이, 『도덕경』, 현암사, 2015, p.19

10) 정민영, 김재웅,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의 무의식을 통해 바라본 자아성장에 대한 연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코렐라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7호(2014.12), p.300

로 가서 신의 보호 아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기 위안적 요소와 이계에 대한 환상적 기대감이기도 했다.¹¹⁾ 가미가쿠시가 일본적 사유에 의한 개념이라고는 하나 『성서』의 창세기 5장 24절에 따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구절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는 서양에도 가미가쿠시의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미가쿠시의 또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도교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도교는 중국 고대의 애니미즘¹²⁾ 또는 샤머니즘¹³⁾을 바탕으로 민간신앙과 역, 음양, 오행, 무속신앙 등의 개념과 합쳐져서 형성되었다. 도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토속적인 다신(多神)의 존재이다. 고대 일본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내각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천제 국가의 성립을 위해 그 동안 서민들이 받들던 씨족신이나 마을 수호신 같은 소박한 민간 신앙은 부정되고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현대의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명분이 가세하여 신들은 점점 더 잊혀지고 소외되는 존재가 되었다.¹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인간에 의한 신의 소외에 대한 장면이 나온다.



그림 1. 길을 잘 못 들어선 '치히로' 가족과 흐트러진 사당

11) 김종덕 외 지음,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문화』, 책세상, 2008, p.323

12) 구보 노리타다 지음, 이정환 옮김 『옥황상제에서 서왕모까지, 도교의 신과 신선이야기』, 2004, p.64

13) 정재서, 『신화에서 도교로 동아시아 상상력과 민족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p.71

14) 김종덕, 앞의 책, p.325

<그림 1>에서 '치히로'의 아버지는 이사한 집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다. 어떤 산의 입구의 길가에 작은 집모양의 돌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본 '치히로'는 이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치히로'의 어머니는 돌로 만든 사당이며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답한다. 흐트러진 사당을 일견하며 무심하게 대답하는 어머니를 묘사한 장면은 현대인들이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고 모시지 않음을 시사한다. '치히로'의 아버지는 잘 못 들어선 산길을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터널 앞의 석상 앞에 비로소 차를 멈춘다. '치히로'는 어떤 불안감에 부모님과 함께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지만 터널 앞 석상의 음침하고 괴상한 모습에 마지못해 터널로 들어간다.



그림 2. 강제된 선택을 하게 되는 '치히로'

<그림 2>는 '치히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님과 터널로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가 된다는 공포감이 맞물려 의도하지 않은 강제된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제로 넘어간 '치히로'는 돼지로 변한 부모를 되찾기 위해 온천장에서 신들을 위해 일을 한다. 특히 온통 오물로 뒤덮인 부패신 '구사레가미'를 '치히로'가 정성껏 목욕시키는 장면은 타인의 몸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공덕을 쌓는 목욕 보시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불교 전파와 융성을 위해 힘쓴 고묘(光明)황후 일화에서 일본의 목욕 보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절을 건립한 황후는 스스로의 공덕에 만족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아직 공덕이 부족하니 절에 목욕탕을 만들어 귀천을 불

문하고 천 명을 목욕시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신탁을 열심히 실천하던 황후에게 999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심한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황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환부의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내는 등, 지극 정성으로 대접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느새 부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황후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라졌다.¹⁵⁾

'치히로'가 '구사레가미'를 정성껏 목욕 시키는 장면은 인간의 신에 대한 섬김, 즉 목욕보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 봐야할 점은 부패의 신에서 강의 신으로 돌아올 때 '구사레가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오물들이다. 자전거를 비롯한 온갖 생활 폐물들이 '구사레가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진 자연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그림 3. 부패신을 목욕시키는 '치히로'와
부패신에게서 나온 생활 쓰레기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은 일관되게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이야기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자연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에서 캐릭터가 탄생한다. 가미가쿠시는 자연이란 신에게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강제적 섬김의 형태 즉, 강제된 반성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유이다.

3. 어린아이

'치히로'는 신의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15) 김종덕, 앞의 책, p.326

터부시하는 '가오나시'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다. '치히로'는 비가 오는 저녁, 비를 맞고 있는 '가오나시'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그림 4. 순수한 마음으로 '가오나시'를 대하는 '치히로'

'가오나시'는 '치히로'의 친절함에 감화되어 '치히로'가 필요한 약수패를 필요이상으로 주거나, 누구나 좋아하는 금을 '치히로'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을 한 움큼 준다. 하지만 '치히로'는 무심하고 무욕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한다.



그림 5. '치히로'에게 약수패와 금을 주는 '가오나시'

도덕경 제49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성인에겐 고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습니다. 선한사람에게 나도 선으로 대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 에게도 선으로 대합니다. 그리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신의 있는 사람에게 나도 신의로 대하지만, 신의 없는 사람에게는 신의로 대 합니다. 그리하여 신의가 이루어집니다. 성인은 세상에 임할 때 모

든 것을 포용하고, 그의 마음에는 일체의分別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목을 집중하여 分別심을 일으키는데) 성인도 그들을 모두 아이처럼 되게 합니다.¹⁶⁾

하지만 노자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주객 미분의 의식 상태’에서 선함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다. ‘치히로’의 선함은 단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함에서 그치지 않는다. ‘치히로’는 ‘가오나시’의 포악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니바’의 집을 방문하러 갈 때에 ‘가오나시’와 함께 기차를 탄다. 즉, ‘치히로’는 선악의 구분은 알지만 그 차별의 근본을 알기에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객 초월의 의식 상태’임을 알 수 있다.¹⁷⁾



그림 6. '치히로'와 '하쿠'의 모습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주연 캐릭터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한다. '치히로'와 '하쿠' 또한 2차 성징이 드러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쿠'는 '치히로'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이며, '치히로'는 '하쿠'의 진짜 이름인 '니기하야미 고하쿠누시'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용은 신화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란 성의 分別이 생기기

16) 노자원저, 오강남 풀이, 앞의 책, p.226

17) 노자원저, 오강남 풀이, 앞의 책, p.229

이전 자연 그대로의 수용적 상태, 분별적 가치가 분화되어 나오기 이전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신화나 종교 사상에서 어린이의 이미지는 흔히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구원자로 등장한다.¹⁸⁾

즉, '치히로'와 '하쿠'는 '어린이'의 상태로서 서로에게 구원자적 역할을 한다. 특히 '하쿠'는 본래 강의 신이자 용임을 상기 한다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를 어린이의 형상으로 묘사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사유세계는 용의 '어린이'의 개념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사망'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순환, 왕복'의 의미이다. 다음은 물의 상징성을 설명한 구절이다.

노장사상에서 자연의 힘을 표현하는 여러 은유들은 대부분 '무의식'을 상징한다. '부어도 가득차지 않고 떠내도 마르지 않는 것'은 '번식-사망-부활-영생'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즉, 원형의 시각에서 보면 물은 생명과 창조의 본원이며 물의 두드러진 특징은 순환·왕복의 운동을 한다는 사실에 있다.¹⁹⁾

'치히로'는 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터널이 있던 장소로 간다. 하지만 날이 저문 뒤의 그 곳은 유람선이 운행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있다. '치히로'는 돌아가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지만 깊은 수심에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는 회귀를 방해하는 물로서, 나아감을 멈추게 하는 '사망'의 의미와 유사하다. 그래서 '치히로'가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 물로 가득 찼던 그곳은 푸른 들판으로 변해 있다. 즉, 회귀를 방해하는 물의 제

18) 이부영 지음, 『노자와 용』, 한길사, 2012, p.93

19) 양승권 지음, 『노장철학과 니체의 니힐리즘』, 도서출판 문사철, 2013, p.180

거를 통해 '치히로'의 회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림 7. 사망의 물과 들판으로 바뀐 장소

하지만 물이 '치히로'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해서 부정적 의미의 '사망'의 개념이 아니다. 부활을 위해 사망의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사망의 물은 '치히로'가 인간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물은 순환과 왕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물의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는데, 첫째는 '치히로'가 '제니바'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 장면에서 물의 순환과 왕복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기차는 물위를 달리며 손님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기차는 물위의 노선을 따라 순환하고 왕복운동을 한다. 즉, 물은 기차와 기차를 탄 손님들을 회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치히로'가 아주 어릴 때 고하쿠강에 빠진다. '하쿠', 즉 고하쿠강이자 강의 신은 '치히로'를 물가로 옮겨주고 '치히로'를 회귀시키는 이야기에서 물의 순환과 왕복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림 8. 순환, 왕복의 의미를 지니는 물

또한 용은 물의 원형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은 가장 잘 알려진 무의식의 상징이다. 물은 계곡의 신(谷神)이고, 그 성질이 물과 같은 도道の 수룡水龍이며 음陰에 흡수된 양陽이다. 그러므로 물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화된 정신을 의미한다.²⁰⁾

용은 또한 “생명에 대한 원형은 물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미지” 라고 말을 한다.²¹⁾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쿠'에 대한 묘사와 용의 물의 무의식적 상징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진다. '하쿠'는 강의 신으로서 용의 모습과 아직 성별이 미분화된 아이로 묘사된다. 즉, 수룡의 형태와 음의 여성적 모습이 흡수된 양의 남성적 모습의 형태이다. 또한 '하쿠'는 인간세계의 '치히로'를 구해줬으며, 신의 세계에서는 '치히로'를 인간세계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하쿠'의 역할과 모습은 일본적 사유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무의식적 사유에서 탄생한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림 9. '하쿠'의 어린아이의 모습과 용의 모습

5. 순환적, 나선적 세계관

'치히로'는 터널을 통해 신의 세계로 간다. '유바바'의 마지막

20) C.G Jung, Trans. R.F.C.Hull,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Vol. 9 Part 1, Pre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18-19/양승권 지음, 『노장철학과 니체의 니힐리즘』, 도서출판 문사철, 2013, p.178, 재인용

21) 양승권, 앞의 책, p.179

테스트를 통과한 뒤, '하쿠'는 '치히로'를 터널이 있는 쪽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터널을 통해 '치히로'는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온다.

노자의 『도덕경』 제 40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약함이 도의 쓰임새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 ‘있음有’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無’에서 생겨났습니다.²²⁾

또한 『성서』의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중략)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²³⁾

『도덕경』과 『성서』는 모두 순환 원리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흔히 동양사상은 원형적, 순환적이고 서양사상은 직선적,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원형적이고 순환적이라는 뜻은 인과율의 개념이다. 하지만 노장사상은 환원적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다. 즉 원인과 결과에 지배받으며 상황 속에서 맴도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순환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나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불교의 사상 또한 윤회를 거듭하다가 해탈을 하는 순환 발전적 모습이다. 즉, 해탈의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인과율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 위치가 생기게 된다. 『도덕경』 제28장은 비환원적, 나선적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협곡이 될 것

22) 노자원저, 오강남 풀이, 앞의 책, p.188

23) 네이버 두산백과, www.naver.com, 검색어: 알파와 오메가, 2015.11.07

입니다. 세상의 험곡이 되면, 영원한 덕에서 떠나지 않고, 갇난아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극無極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알면서 오욕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풍족하게 되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됩니다. 성인은 이를 사용하여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²⁴⁾

노자는 갇난아기, 무극의 상태, 통나무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태는 태초에 시작되었던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아는 갇난아기, 흰 것과 검은 것(양극)을 아는 무극의 상태, 쪼개짐을 아는 통나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서』의 마태복음 1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너희 죄에서 돌아와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²⁵⁾

예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become as little children)”라고 주문한다. 어린아이와 ‘같은(as)’ 상태이므로 어린아이와는 다른 의미이다. 즉, 노자의 남성과 여성을 아는 갇난아기와 같이 비환원적, 나선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4) 노자원저, 오강남 풀이, 앞의 책, p.136

25) NLT한영해설성경편찬위원회, 『NLT한영해설성경신약전서』, 아가페, 2002, p.29



그림 10. 터널을 통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치히로'

'치히로'는 터널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엄마의 안부를 물어보지만 터널을 통과한 후, 인간세계로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심하게 터널 쪽으로 쳐다본다. 하지만 '제니바'에게 받은 머리끈은 '치히로'가 신의 세계에서 겪은 일들이 환상이 아님을 말해준다. '치히로'는 비록 원래 있던 인간 세계로 돌아왔지만 신의 세계를 겪은 '치히로'는 터널을 통과하기 이전의 '치히로'와 같을 수 없다. 『도덕경』과 『성서』에서 말한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순환적이지만 발전하는 세계관을 '치히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현대인들은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의 풍족은 정신적, 영혼의 풍요까지 가져다주지 못했다. '유바바'는 '하쿠'의 몸속에 벌레를 넣어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金を 제공하는 '가오나시'를 VIP로 대우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유바바'처럼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 금권주의적인 인물을 유능하고 합리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바바'는 '가오나시'가 준 금에 한눈이 팔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보'가 가짜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가오나시'가 준 금도 결국 잿더미로 변해버린다.

반면 '치히로'는 누구나 꺼려하는 냄새나는 부패의 신을 정성껏 목욕시키는가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치히로'는 누구나 터부시 하는 '가오나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오나시'가 다른 신들을 잡아먹으며,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에도 그런 '가오나시'를 특별한 마음 없이 대하였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과 영혼의 빈곤으로 불균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노자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²⁶⁾라고 한다. 현실세계에서 '치히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둔하고 투박하며 융통성 없음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금은 진정한 금이 아니었고, 정성이 깃든 목욕을 받은 부패의 신은 실은 강의 신이었다. 그리고 강의 신은 '치히로'에게 감사의 인사로 환약을 선물한다. '치히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그것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물과 같은 마음으로 흘러보내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지닌다. 노장사상과 니체의 영원회귀의 개념에 따르면 물은 생명과 창조의 본원이며, 순환, 왕복의 운동 과정에서 영생을 위해 사망의 단계를 지니고 있다. '치히로'의 우둔하고 투박하며 융통성 없이 보이는 행동들은 물이 항상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낮아(사망) 보이지만, 결국 바다(영생)가 되는 원리와 같을 것이다. '치히로'의 거치적거림 없이 순수한 마음의 보답으로 강의 신에게 환약을 선물 받았고, '가오나시'와의 동행이 결과적으로 인간 세계로의 회귀를 도운 것과 같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이고 합리적이며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근원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로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치히로'는 물과 같은 삶 즉,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다는 것마저 의식하지 않으며, 구태여 부산하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방식 그대로가 남에게 이익을 주는 물²⁷⁾처럼 항상 흐르는 삶의 태도를 살았기에 순환하고 나아갈 수

26) 노자원저, 오강남 풀이, 앞의 책, p.192

27) 노자원저, 오강남 풀이, 앞의 책, p.54

있었다.

권력지향적인, 물질만능적인 현실의 풍토가 다른 아닌 우리 인간이 일궈낸 결과라면 노자의 말씀처럼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신의 없는 사람에게도 신의로 대하여, 그리하여 선과 신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다른 아닌 우리 인간일 것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치히로'처럼 알지만 분별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 즉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다름과 틀림이 없는 삶을 지향한다면 우리 인간은 본연의 존재로 회귀하고 또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자, 고전연구회 옮김, 『논어』, 더클래식, 2014.
- 구보노리타다, 이정환 옮김, 『옥황상제에서 서왕모까지, 도교의 신과 신선이야기』, 뿌리와 이파리, 1996.
- 김종덕,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문화』, 책세상, 2008.
- 김치완,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철학여행』, 인문산책, 2011.
- 노자, 오강남 풀이, 『도덕경』, 현암사, 2015.
- 양승권, 『노장철학과 니체의 니힐리즘』, 도서출판문사철, 2013.
- 이부영 지음, 『노자와 음』, 한길사, 2012.
- 김은미, 권경은, 「문화자본과 확장된 '문화소비'-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서 어떻게 소비하는가로」,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69호(2015.2), pp.111-138
- 김종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세계관 -인물과 사건에 관한 분석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2011.7), pp.110-120.
- 양세혁, 좌은정,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캐릭터 성격구조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2호(2005.4), pp.123-136.
- 유강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드러난 노자(老子) 사상」, 『아시아문화연구』 제18집, (2010.5), pp.183-209.

정민영, 김재웅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의 무의식을 통해 바라본 자아성
장에 대한 연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코렐라인>의 비교분
석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7호(2014.12),
pp.287-306.

C.G Jung, Trans. R.F.C.Hull,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Vol. 9 Part 1, Pre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문화, 2015.11.05.

네이버 교육학용어사전, www.naver.com, 검색어: 인문학, 2015.11.10.

네이버 두산백과, www.naver.com, 검색어: 알파와 오메가, 2015.11.07.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검색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15.11.07.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2001).

ABSTRACT

Interpretation of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in Plural Analysis

Pyo, Jeong-Hee · Lee, Tae-Gu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was released in South Korea in 2002 with more than 2million audiences and had been appraised as a successful and sensational work. The work let the audiences highly evoke interest and curiosity through offering magnificent sceneries, weird and funny creatures and stimulating imagination, before having no idea about the work produced by Miyajaki Hayao, one of the greatest directors. Well-concentrated his works seem to be easy to understand but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very different ways. Expending the range of analysis of his works, for example, from its technical to cultural and philosophical etc. has an enormous amount of value of diversity such as a ray of light passing through a prism.

For this reason,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has been studied in many different views. This paper will analyse this animation in respect of ideas of eastern as well as western to show differences from former papers. The ideas of eastern and western seem to be not in a line, but this study will suggest that the two different ideas are not different, actually. Through plural analysis of <The Spiriting away of Sen and Chihiro>, ask questions about what life is and what the direction is.

Key Word : Animation, Plural Analysis, Eastern Ideas, Western Ideas

표정희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609-745) 부산시 금정구 식물원로 64
linyi007@naver.com

이태구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digiani@pusan.ac.kr

논문투고일 : 2016.01.19.
심사종료일 : 2016.02.25.
게재확정일 : 2016.03.03.